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이영훈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장)

최장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경제 내구력의 개념과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 정책
- I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대북 경험 수요
- IV. 북한의 대러 경험 수요
- V. 요약 및 시사점

## 〈요 약〉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러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북러 경제협력이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 내구력을 정의하였는데, 경제 내구력이란 제재나 코로나 국경봉쇄로 인해 단절 혹은 위축된 가치사슬을 복원·갱신하는 역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토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될 경우, 전쟁은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전쟁 물자와 전후 복구에 필요한 노동력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북제재로 가치사슬 연계가 크게 위축된

\* 이 원고는 “이영훈, 최장호,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제18권 제2호, pp.5~52”에 실린 글을 재정리한 것임.

부문, 즉 석유, 기계/설비, 과학기술 등을 제공받아 생산설비 보수 및 개건에 활용하고 산업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북러 협력이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당분간 북한은 핵무력 증강에 방점을 둘 수 있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 I. 머리말

북한 경제는 대북제재, 코로나 및 자연재해라는 3중고로 인해 2017년 제재 본격화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남한에 대한 핵공격과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전례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폭 늘리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2022.2.24.)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과 EU 등 총 48개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지 않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시험 발사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2022.5.26.)하는가 하면, 심지어 러시아 공산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기도 하였다.<sup>1)</sup>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러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1) “러 공산당 “北핵무기 보유, 국가방위력 강화 당위성 실증”” 『연합뉴스』, 2022.9.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04300504>) (검색일: 2022.10.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긴밀해지고 있는 북러협력이 제재 국면이란 특수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내구력의 강화 여부는 핵보유 지향의 지속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 내구력은 어떻게 정의되며, 북한은 핵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어떻게 경제 내구력을 강화해 왔는가? 특히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둘째, 일반적으로 협력은 상호이익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셋째, 만약 북-러 협력이 양국의 상호이익이 된다면, 이는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정세 및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 II. 경제 내구력의 개념과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 정책

### 1. 경제 내구력의 개념

경제 내구력에 대한 논의는 경제난 혹은 경제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충격을 분석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먼저, 경제 내구력을 경제난과 연계한 것을 살펴보면 전현준 외(2006)는 경제 내구력을 사적경제영역, 생활수준, 대외경제관계라는 세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했다.<sup>2)</sup>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 내구력을 사적경제영역(사적 경제영역의 비중), 생활수준(식생활, 생필품 및 주거지, GNI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무역, 외채) 등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한계가 있다.

보다 적합성이 높은 정의는 서재진(2007)의 체제 내구력의 개념을 수용한 임수호(2007)의 개념 정의인데, 그는 복원력(resilience)과 적응력(adaptability)의 합을 경제 내구력(sustainability)으로 규정하였다.<sup>3)</sup> 즉, 북한 체제가 위기를 맞이할 때 다시 원래의 체제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복원력)과 본래의 체제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체제가 개혁되어 새로운 체제로 발전·변화함으로써 생명력을 유지하는 능력(적응력)으로 경제 내구력을 정의한 것이다.<sup>4)</sup>

그러나 이들이 정의하는 복원력과 적응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특징인데, 시장화가 진전되면 체제 복원력은 약화되는 반면 체제 적응력은 강화되고, 반대로 계획경제로 회귀하면 체제 복원력은 강화되는 한편 체제 적응력은 약화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체제가 추세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상반된 방향성을 갖는다는 개념 설정은 현실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필자의 주장처럼 시장화가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또는 계획경제로 복귀하면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2) 전현준 외(2006) p.8.

3) 서재진(2007) p.11., 임수호(2007) p.5.

4) 서재진, 앞의 글, p.11.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경제 내구력을 경제제재와 연계한 것을 살펴보면, 경제제재에 대한 충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뚜렷한 개념 정의 없이 내구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제재극복역량도 내구력에 영향이 있다.” 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역량도 내구력 평가에 고려해야 할 변수로 부상했다.”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경제 내구력에 대한 적절한 개념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경제 내구력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내구력(耐久力)은 견딜 耐, 오래 久, 힘 力으로,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영어로는 durability, 혹은 sustainability라고 정의된다. 이를 현실 문제를 고려하여 구체화하면, 북한 경제의 내구력은 경제제재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한 ‘방어력’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제재와 방어는 무엇을 표적으로 하는가?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 즉 연구개발(기술) - 물자/자금 조달 - 제조(생산) - 유통 - 판매/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sup>5)</sup>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제재는 대상국을 GVC(Global Value Chain)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상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타격을 입혀 비핵화 등 목표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행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최근 GVC 재편이 이슈로 부상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핵심 첨단기술의) GVC에서 배제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경제제재에 대한 방어는 손상된

5)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마치 사슬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치사슬의 지속가능한 복원·갱신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 내구력이란 제재로 인해 단절 혹은 위축된 가치사슬을 복원·갱신하는 역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대북제재에 대한 방어력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내구력은 일차적으로 내부 원천에 의존하는 자력갱생 역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 역량은 폐쇄·고립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한적 개념인데 반해, 북러 경제협력 진전 등 대외환경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경제 내구력을 자력갱생 역량으로 국한하는 것은 현실 설명력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경제 내구력은 자력갱생(내부 자원) 역량뿐 아니라 경협(외부 자원) 역량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 2. 대북 경제제재와 경제 내구력 강화 노력

### (1) 대북 경제제재와 영향

현행 대북제재는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 제한, △유류 공급제한(원유 연간 400만 배럴(기존 수준 동결), 정유제품 50만 배럴(기존 공급량의 90% 차단)),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 대북수출 차단, △해외 파견노동자 송환, △북한의 주요 수출품(무연탄 및 광물, 의류, 수산물 등) 수출금지, △대북 경협 금지, △해상 검색·차단 강화 등이다.

〈표 1〉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재구성

		비중(%) (2015기준)	UNSCR 2270 2016.3	UNSCR 2321 2016.11	UNSCR 2371 2017.8	UNSCR 2375 2017.9	UNSCR 2397 2017.12	2019년 2월 현재
주요 수출 품목	무연탄	42.4	조건부 수출금지	수출 상한설정	수출 전면 금지			
	석유·의류	32.6				수출 전면 금지		
	수산물	4.4			수출 전면 금지			
	식료품·농산품	2.8						일부 품목 수출 금지
주요 수입 품목	농식품	12.7	수입 제재대상이 아님					
	석유	20.9	수입 제재대상이 아님(의류 수출 금지로 위탁가공용 석유 수입 금지)					
	산업용기계·전자기기	19.8					수입 전면 금지	
	운송수단	6.9					수입 전면 금지	
	원유·정유제품	—				수입 상한설정	수입 상한 강화	
외화 벌이 수단	해외노동자 파견	—				신규 고용 금지	24개월 내 모두 송환 (2019년 12월까지 전면 철수)	
	대북 합작·합영	—				전면 금지(120일 이내 폐쇄)		
	영해 조업권 거래	—						전면 금지
	대북 관광	—	제재대상이 아님					

자료: 최창호·최유정(2019) pp.7~8

먼저, 대북제재가 가치사슬에 미친 영향을 생산주체인 기업소의 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면, 물자조달과 기술개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로 기업의 물자조달과 기술개발의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이 더 악화되었다.<sup>6)</sup> 북한이 물자조달에 애로를 겪는 부분은 자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국산화가 저조한 원자재로 에너지(유류), 설비/부품(기계, 운송수단, 철강), 기타 비료(인, 칼리 비료), 콩기름, 밀가루, 설탕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술 습득은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후진국의 경우는 자금과 인력의 제약으로 주로 기술이전에 의존하게 되며, 기술이전은 무역, FDI 및 인적 교류/네트워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로 인해 무역, FDI, 인적교류 등 물자 조달과 정상적인 기술이전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

## (2) 경제 내구력 강화 노력

### 가. 2013년 경제-핵무력 병진건설노선 추진: 국산화 및 경제개혁

2013년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건설노선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국산화를 추진했다. 이는 앞으로의 대북제재를 고려한 사전 대응의 성격도 있다. 2013년부터 경공업 국산화, 2014년부터 자재 및 설비 생산의 국산화, 2017년부터 금속, 화학 및 운송수단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였다.<sup>7)</sup> 한편 자원배분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6) 이영훈(2022) p.175.

7) 이유진(2017) p.145



협동농장책임관리제 등의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이로 인해 계획, 재무, 인사관리, 기술개발, 물자조달, 생산 및 판매 등 경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에 의존하는 가치사슬을 내재화 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2019년 북미 핵협상 결렬: 자력갱생 및 핵무력 강화

2019년 핵 협상 결렬을 계기로 자력갱생을 전제로 핵무력을 강화 하였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견뎌낼 수 있는 자력갱생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치를 ‘장기전’으로 인식하고,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을 때까지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 하겠다”며 핵무력 강화와 함께 자력갱생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다. 경제 내구력 강화 노력의 한계

한편, 2020년 1월 이후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물자 조달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저조) 물자난이 심화하였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도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내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북한의 계획이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 삼아 경제 내구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Ⅲ.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대북 경험 수요

#### 1.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 (1) 전쟁과 러시아의 경제 현황

이 전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은 이미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 향후 전쟁의 양상은 어느 쪽이 물자, 인력 및 사기 등의 측면에서 보다 강한 내구력을 갖고 있는가가 전황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내구력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라 할 수 있다. 2020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12.1%), 매장량은 세계 6위(6.2%)이다. 전체 수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sup>8)</sup> 지난해 러시아 전체 예산(25조 2,900억 루블)의 36%가 에너지 수출에서 나온 셈이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 정계와 군부 수뇌부, 대부호와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또는 동결,<sup>9)</sup> △제재

---

8) 2021년 한 해에만 원유와 가스 수출로 약 9조 1천억 루블(약 143조 원, 우크라이나 침공 전 환율)을 벌어들였다.

9)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 신형재벌 올리가르히에도 초점을 맞췄다. 푸틴의 핵심 지지층인 올리가르히는 옛소련의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업권을 독점하며 엄청난 부를 차지한 특권계층을 형성했다.

리스트 인물과 그 가족들의 비자 제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첨단 기술과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 등을 통해 GVC에서 러시아 경제를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2014년 이후 경제제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입대체 정책과 더불어 핵심 기술 개발, 외환보유고 증대, BRICs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회원국 자격 유지 및 협력 확대, 특히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력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는 등 경제내구력을 강화해 왔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과의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GVC 단절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화하여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봉쇄하고, 달러 결제망 퇴출에 대해서는 루블화 결제로 맞대응하였으며,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나라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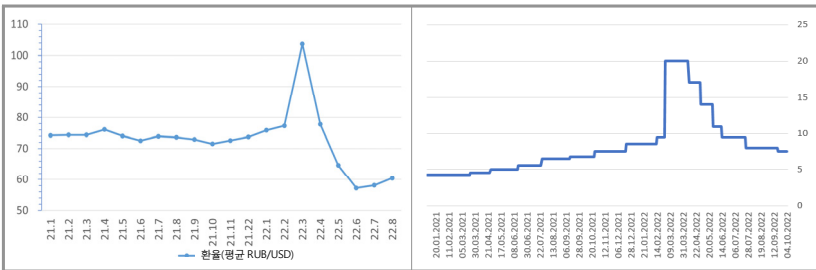
대러 경제제재의 효과로 서방은 수년째 지속했던 저유가로 침체에 빠진 러시아 경제가 국제금융망 차단, 산업생산과 교역 위축, 저축 고갈, 루블화 폭락 등 악재가 겹치며 1998년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sup>10)</sup> 심지어 러시아 중앙은행도 2022년 GDP는 전년대비 8~10% 감소하고, 2023년에도 마이너스 3%의 성장률을

10) 미국 CNBC 방송(2022.3.3.)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최상위 부자 20명이 국외 자산 압류와 금융 동결, 루블화 폭락으로 총자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800억 달러(약 96조 6천억원)를 날렸다고 보도. 한편 미국 투자은행 제이피(JP)모건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러시아 GDP가 11%가량 급감하면서 1998년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sup>11)</sup>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아직까지는 파국을 낳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수출에 따른 이익(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과 자본 통제(기준금리 20%로 두배 인상, 외화수입 80% 루블화 환전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루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림 1〉 루블화/\$의 가치 및 기준금리 변동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 <https://www.cbr.ru/>)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 (2) 향후 전쟁 전망

러-우 전쟁의 특징, 서방의 제재 및 러시아의 맞대응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쟁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양국 모두 타격을 입는 가운데 타협과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 “러시아, 루블화 폭등에 금리인하 … 짐작과 달리 무슨 일?,” 『한겨레』, 2022.5.3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44938.html>〉(검색일: 2022.11.1.)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서방의 막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러시아의 경제 내구력이 강하고 병합된 영토보전을 위해서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도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협과 휴전이 불가피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서방의 지원이나 러시아의 전쟁물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마크 캔시언(Mark F. Cancian, CSIS 선임 고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가 고갈되었으며,<sup>12)</sup> 조셉 보렐(Josep Borrel) EU 외교안보위원장도 NATO 회원국의 군사 비축량이 상당 부분 고갈되었다고<sup>13)</sup> 말하고 있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도 전쟁 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4)</sup>

---

12) Mark F. Cancian, (2022.9.16.) "Is the United States Running out of Weapons to Send to Ukraine?". CSIS, <<https://www.csis.org/analysis/united-states-running-out-weapons-send-ukraine>> (검색일: 2022.10.1.)

13) CNBC 인터뷰(2022.9.28.) "EUROPE NEWS The U.S. and Europe are running out of weapons to send to Ukraine" <<https://www.cnbc.com/2022/09/28/the-us-and-europe-are-running-out-of-weapons-to-send-to-ukraine.html>> (검색일: 2022.10.1.)

14) The DefensePost(2022.9.22.) "Russian Soldier Complains of Weapons Shortage in Another Intercepted Call" (<<https://www.thedefensepost.com/2022/09/22/russian-soldier-weapons-shortage/>>) (검색일: 2022.10.7.)  
CNBC(2022.9.6.) "U.S. says Russia buying weapons for Ukraine war from North Korea amid "severe supply shortages"" (<<https://www.cbsnews.com/news/russia-buying-north-korea-weapons-amid-ukraine-war-shortages-us-says/>>) (검색일: 2022.10.7.)

## 2. 러시아의 대북경협 수요

### (1) 과거 러시아의 대북 경협 수요

러시아의 대북 경제협력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약화되었고, 이후 최근까지는 정치외교적인 협력관계의 성격이 강했다. 최근까지 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적·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대부분의 의제가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19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소련 수출입 비중은 최소 33.4%, 최대 29.3%에 이를 정도로 북한 경제에서 소련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였는데, 이는 북한 중화학 공업의 생산설비와 원부자재를 모두 소련 기술과 자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북한에게 부족한 소련제 생산설비와 기술을 보완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대북제재로 단절된 북한의 가치사슬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표 2〉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

단위: 천 달러

년도	대러 수출	대러 수입	대러 무역수지
1990	382,750 (33.4)	554,125 (29.3)	-171,375(22.9)
2000	3,404 (0.6)	42,881 (3.0)	-39,476 (9.12)
2010	26,960 (1.8)	83,619 (3.1)	-56,659 (4.9)
2020	702 (0.8)	41,954 (5.4)	-41,252 (6.0)
2021	41 (0.1)	(-)	41 (-)

주: ( )는 북한 전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1990년은 임강택, 1996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박사학위논문), 2000~2021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 (2) 최근 러시아의 대북 경험 수요

### 가. 최근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

최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한편 북한과의 파트너십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시험 발사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022.5.26.). 한편 2022년 북한정권수립일(2022.9.9.)에 푸틴은 의례적인 메시지만 보냈지만, 젠나디 주가노프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 핵무기와 효과적인 운반수단과 같은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잠재력을 보유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과감한 전진은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 국가의 안전을 강화하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실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축전을 보낸 바 있다.<sup>15)</sup>

둘째, 러시아는 북한과 물적·인적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국제경제포럼(SPIEF, 2022.6.15.~18.)에서 신흥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알렉세이 체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 개발부 장관이 ‘북·러 간 철도 운송 재개와 북러 국경 교량(우정의 다리) 개건 사업,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sup>16)</sup>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를 위해 북접 접경지역 화물철도역을 개건(2021.봄) 하였으며,

15) “러 공산당 “北핵무기 보유, 국가방위력 강화 당위성 실증”” 『연합뉴스』 2022.9.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04300504>> (검색일: 2022.10.1.)

16) “북러, 나진-하산 철도 운송 재개 등 경제 협력 논의” 『연합뉴스』 2022.6.18.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8037700080>>(검색일: 2022.10.1.)

화물창고(2021.9~12월)도 신축하였고,<sup>17)</sup> 급기야 북러 화물열차 무역을 재개(2022.11월)하였다.<sup>18)</sup> 북한과 러시아가 항공안전 협정을 체결(2022.8.17.)함에 따라 조만간 북한 고려항공기를 활용한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2022.10.3.)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처럼 최근 러시아의 행보에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협력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러시아의 대북 수요

러시아의 구체적인 수요는 러시아의 전문가와 정치인의 발언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북한의 군수물자, 인력(군사 및 건설 노동자)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 블라디미르 흐루스탈레프(В л а д и м и р Х р у с т а л е в)는 북한이 군사 부문 지원을 통해 돈바스 공화국을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북한은 중국 Type-63의 복사체인 북한의 107-mm 다중발사로켓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

17) “北, 러시아와 ‘단계적 교역 회복’ 논의” 『서울평양뉴스』 2022.2.3.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8>)(검색일: 2022.10.1.)

18) “38노스 “북러 철도무역 순조롭게 진행…北 세상에 문 여는 신호”” 『연합뉴스』 2022.12.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001100071?section=search>)  
(검색일: 2023.2.25.)

19) “북한-러시아, 비행안전성 제고 관한 협정 체결” 『서울평양뉴스』 2022.8.19.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82>)(검색일: 2023.2.25.)

20) “Ответ HIMARS: КНДР может передать ДНР и ЛНР уникальное оружие,” (2022.8.4.), News.ru.  
(<https://news.ru/asia/ekspert-phenyan-mozhet-seryozno-pomoch-dnr-i-lnr-s-voennoj-tochki-zreniya/>) (검색일: 2023.2.25.)



돈바스공화국, 루한스크공화국은 이 무기의 지원을 원하였다. 북한이 보유한 다목적전술미사일인 Spike-NLOS 유사체는 병커, 보트, 자동차, 포병 등 작은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북한의 군사전문가들을 러시아 군인의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22년 1월 20일 러시아 와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였다고 증거사진을 제시하였다. 군사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은 군사 장비의 수출입은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리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포탄, 로켓 등 군수물자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건설 부문 지원이다. 러시아 주요 인사, 돈바스공화국 대표들은 돈바스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 등의 재건사업에 북한 참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마라트 후스нул린(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러시아 부총리는 북한이 돈바스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에 건설업자를 보내는 것을 제안했는데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21)</sup> 그는 현재 돈바스 공화국에서 복원작업에 임하고 있는 건설자 수는 26,000명인데, 3년 이내 복원사업을 종료하려면 수만 명의 건설업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의 표트르 일리체프(Петр Ильичев) 국장은 돈바스공화국과 루한스크공화국이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현재 북한 노동자 사용에 대한 UN 제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돈바스 대표인 데니스 푸실린(Денис Пушилин)은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북한과 협상 중이며

21) “Хуснуллин сообщил, что на освобожденных в ходе СВО территориях работают 26 тыс. строителей,” (2022.8.19.), ТАСС.

(<https://tass.ru/nedvizhimost/15513841>) (검색일: 2023.2.25.)

첫 번째 그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sup>22)</sup> 러시아 과학원 동양연구소의 알렉산더 보론초프(Александр Воронцов)는 코로나19 발발 전 북한 이주노동자의 총 20만 명 중 4만 명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유능하고 숙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조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평가했다.<sup>23)</sup>

주북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도 북한과 돈바스간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았다.<sup>24)</sup> 첫째, 북한 노동자들은 우수한 숙련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어 돈바스의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시설을 복원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구소련의 기술지원으로 북한의 철·비철 야금, 운송 엔지니어링, 전력 산업의 거의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여전히 작동 중이며, 돈바스에 위치한 슬라반스크 및 크라마토르스크 중공업 공장 등에서 이러한 장비가 생산되고 있다. 북한은 생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에서 제조된 예비 부품 및 장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구소련

22) “В МИД заявили, что Россия не будет мешать сотру  
дничеству Донецка и Пхеньяна,” (2022.8.18.), 1prime.ru  
(<https://1prime.ru/development/20220818/837818196.html>) (검색일:  
2023.2.25.)

23) “Рабочие из КНДР 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восстан  
овлении Донбасса,” (2022.8.19.), Ведомости.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2/08/19/936759-v-pravitelstve-dopustili-ispolzovanie-rabochih-iz-kndr-dlya-vosstanovleniya-donbassa>)  
(검색일: 2023.2.25.)

24) “«Северокорейцы не выставляют нам счета после  
кажд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ООН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Алек  
сандр Мацегора — о мотивации Пхеньяна в призна  
нии ДНР и ЛНР,” (2022.7.18.), Извес  
(<https://iz.ru/1365120/nataliia-portiakova/severokoreitcy-ne-vystavliaiut-nam-scheta-posle-kazhdogo-golosovaniia-v-onn>) (검색일: 2023.2.25.)

시대 북한은 돈바스에 마그네시아 클링커(광물)를 멜리토폴 항구로 보냈으며, 돈바스는 점결탄과 밀을 북한으로 보낸바 있는 등 양측간 무역 가능한 재화는 다양하다. 구소련 시대 북한은 이 지역에 마그네사이트 클링커를, 이 지역은 북한으로 점결탄과 밀을 보낸 적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대북협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향후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될수록 군수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반대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휴전이 되는 경우 노동자 파견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IV. 북한의 대러 경험 수요

### 1. 최근 북한의 대러관계 변화

대러 경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적극적이다. 민주조선(2022.9.17.)은 ‘쌍무 관계 발전을 추동한 역사적 계기’를 제목으로 “...친선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 발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 ... 앞으로도 조선과 러시아는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따라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북러협력에 적극 나서는 것은 대북제재 하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대러 경험의 주요 내용

### (1) 대러 경험의 방향

북한의 대러 경험의 목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는 가치사슬의 복원·갱신에 있을 것이다. 향후 북러 협력 확대는 주로 물자 조달과 선진 과학기술 도입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기계·설비, 운송수단, 비료 등의 도입은 북한의 공장 정상화 및 식량 증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내구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항공·우주(인공위성, 미사일)를 비롯한 첨단 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을 도입은 정체된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군수 물자 수출 및 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다.

### (2) 주요 부문

#### 가. 석유

석유 밀반입은<sup>25)</sup>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유지

---

25) 북중 접경지역에서 기업소나 밀수꾼들이 수산물 등을 중국의 밀수업자에게 제공하고 석유제품을 가져오거나, 돈주들이 무역회사에 수입대금을 납부하고 수입 선박의 빈 공간에 석유제품을 적재하기도 하며, 공해상에서 선박 간에 물품과 석유제품을 옮겨 적재하는 것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뿐 아니라 국가의 묵인하에 여러 주체가 직접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 보위성이 국경 경비대에 소속 무역회사들의 밀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여 군부대가 운송수단 등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의 밀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해상에서 석유제품을 환적하는 북한 유조선의 불법행위를 2018년에만 89건 공개하였고, 미 재무부는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적의 선박을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규철(2018) pp.83~87.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sup>26)</sup> 향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 석유 밀반입 통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2014년 이후부터 합법적인 방식과 밀거래 방식 등 두 가지 루트로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으로 망명한 전 39호실 고위 탈북자는 러시아로부터 매년 20~30 만톤의 석유를 선박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27)</sup>

## 나. 기계/설비

북한의 철, 비철, 전력 등의 산업 설비는 과거 대부분 구소련의 지원으로 설치되어 여전히 작동 중이며, 현재 공장 현대화 등 개보수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주북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에 따르면 러시아 중공업 공장에서는 이러한 장비가 생산되고 있어 북한의 공장 현대화에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장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sup>28)</sup>

참고로 북한의 산업 설비 개선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의 투자와 지원으로 중국식 산업 설비를 건설

26) “유엔안보리제재에도 北 에너지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동아일보』 2019.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13/95496256/1>)  
(검색일: 2023.2.25.)

27) 김규철, 앞의 글, pp.83~87.

28) “«Северокорейцы не выставляют нам счета после кажд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ООН»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8212; о мотивации Пхеньяна в признании ДНР и ЛНР,” (2022.7.18.), Известия.  
(<https://iz.ru/1365120/nataliia-portiakova/severokoreitsy-ne-vystavliaiut-na-m-scheta-posle-kazhdogo-golosovaniia-v-oon>) (검색일: 2023.2.25.)

하는 것이고, 둘째는 1960~70년대에 러시아의 투자와 지원으로 건설된 러시아식 산업 설비를 개건하는 것이며, 셋째는 과거에 이루어진 러시아식 산업 설비를 북한 자체의 기술과 투자로 현대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협력은 두 번째 방식 산업 설비 개건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은 세계 최대 중화학공업지역의 하나로 소련 근대화의 공업적 기반이었다. 북한은 노동자를 돈바스 지역 전후 복구사업에 투입한 대가의 일환으로 돈바스 지역의 중화학공업 설비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하는 것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운송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국제사회의 감시가 어렵다.<sup>29)</sup> 이는 비단 기계/설비 수입 뿐만 아니라 노동자 파견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러시아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에게 정치·외교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미 크림반도 병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때문에 북러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러시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개연성이 클 것이다.

29) “전문가들 “러시아, 스스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다수 위반...유엔 밖 대북제재 모색해야”  
『VOA』 2022.9.9.) <<https://www.voakorea.com/a/6737240.html>>(검색일: 2023.2.25.)

## 다. 식량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국으로 주곡도 부족하지만, 최근에는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2021.9.28.)에서 주민들이 밀가루는 물론, 밀가루 조리에 필요한 콩기름(대두유), 설탕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농산물 및 비료/농약의 주요 생산국<sup>30)</sup>이므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밀가루, 콩, 콩기름, 설탕은 물론 비료 등을 수입할 수 있다. 우선, 북한과 가까운 연해주로부터 콩, 감자, 설탕 등을 수입하거나 북한 노동력을 파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다.<sup>31)</sup> 참고로 두만강(豆滿江: 콩이 가득한 강)이 흐르는 연해주는 전 세계 콩의 기원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표 3〉 연해주 주요 농축산물 생산량과 자급률

단위: 천 톤

구분	계란(백만개)	우유	육류	감자	콩	채소	설탕	식용유
수요량	508.8	645.7	142.8	195.7	165.0	254.4	50.9	19.6
생산량	325.0	105.2	52.9	379.8	160.5	183.4	100.0	10.0
자급률(%)	53.9	16.3	37.0	194.1	97.3	72.1	196.5	51.0

주: 수요량은 권장소비량 기준  
자료: 연해주 정부, 농업결산자료(2011)

30)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화하자, 2022년 3월 19일 독일 농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육류 소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라며 “마그레브,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이미 밀과 기타 곡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12~18개월 동안 식량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31) 성진근(2014) p.4.

다음으로 북한이 부족한 비료를 수입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비료 생산량은 연 60만 톤을 상회하는데(2018년 61만 톤, 2019년 61만 톤, 2020년 67만 톤<sup>32)</sup>), 러시아의 비료 수출물량도 상당하기(2020년 1,661만 톤)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4〉 러시아의 비료 수출

단위: 천 톤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질소	5,378	5,517	5,827	5,789	5,641	6,249	6,487	7,081	7,188
인	2,443	2,437	2,505	2,231	2,461	2,529	2,777	3,121	2,952
칼륨	5,037	6,064	4,500	6,941	7,384	12,026	14,090	6,195	6,468
총 비료수출	12,858	14,019	12,833	14,961	15,487	20,804	23,354	16,396	16,608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en/>)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라. 과학기술

러시아의 기술개발정책은 제조업 육성정책과 연계되어 각 산업분야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주·항공 과학 기술 분야의 강자이다. 우주 분야의 예를 들면, 핵추진 로켓, 신소재 태양열전지, 달 탐사선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우주개발뿐 아니라 첨단무기 개발 및 첨단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한국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hairo.unikorea.go.kr/info/ExpIndex0206.do>)  
(검색일: 2022.2.25.)



러시아의 과학기술은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북한의 기계, 전자, 로봇 등 분야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전의 통로는 제품 수입, 합작 생산, 인적 교류 등이 될 수 있다.

#### 마. 노동자 파견

먼저 복구를 위한 건설노동자 파견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향후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협상을 하게 되면 전후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미국과 EU, 돈바스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의 지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유럽 국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노동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가 돈바스 지역의 전후 복구를 전담하면서 국제사회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업 및 광업 분야 파견이다. 다음에 소개될 2022년 2월 2일 체쿰코프 장관과 신흥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나진-하산 철도 노선 복원, 어업 분야 협력 재개 등을 협의하였다.

셋째, 북한군 파병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러시아의 국방 전문가 이고르 코로셴코는 국영TV에서 10만명 파병을 언급한 바 있다 (2022.8.5.). 나중에 공식 부인했지만, 이는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자체에서 병력을 동원하기 어려워지면 북한군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기존 협의의 실행 부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대북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전쟁을 기점으로 이행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우선, 2019년 북러 대외관계는 ‘당과 당’ 차원의 교류와 북한과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대부분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중요도에 따라 경제 협력과 교류협력으로 키워드를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는데,<sup>33)</sup> 경제 협력을 보면, ①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② 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 추진 ③ 두만강 교량 건설 ④ 북한 상품 전문점 건설 ⑤ 러시아 루블화 결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음으로 교류협력을 보면, ⑥ 정상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⑦ 경제협력 위원회 ⑧ 전략대화 ⑨ 인도적 지원 ⑩ 동방경제포럼 ⑪ 고위급 인사교류와 군사협력 등이다.

한편, 2022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기간 다루었던 양국 간 교류 재개 방안과 6월 23일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국동·북극 개발부 장관과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 화상회의 내용이다<sup>34)</sup> (스푸트니크 통신, 2022.6.23.). 먼저, 2022년 2월 2일 회의를 보면, 체쿤코프 장관과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나진-하산 철도 노선 복원, 어업 분야 협력 재개 등을 협의하였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중부 펜자주 등과 탄광, 농업 등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 6월 23일 회의를 보면,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국동·북극 개발부 장관과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은 △철도 운송재개와 양국 국경을 가로지르는 차량 전용 다리 건설 등 러시아

33) 최장호, 이정균(2020). p.13

34) “북러, 경제 교류·협력 재개 방안 추가 논의” 『연합뉴스』 2022.6.24.)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61400096>) (검색일: 2023.2.25.)

극동지역 내 물류 인프라 연결을 향상하는 방안을 협의, △양국 정부 간 경제·과학 협력 분야 위원회와 산림, 수송, 에너지 산업 분야 하위 분과위원회가 교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분과별 위원회 운영 재개에도 합의했다.

## V. 요약 및 시사점

### 1. 북러협력 전망 및 북한의 경제내구력에 미칠 영향

향후 북러협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및 기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대북협력 수요는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될수록 군수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반대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휴전이 되는 경우 노동자 파견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협상과 휴전으로 타결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수(特需)’를 낳음으로써 북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수행과 전후처리에 필요한 군수 물자와 인력(건설노동자, 군사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북제재로 가치사슬의 단절 혹은 위축이 심한 부문, 즉 석유, 기계/설비, 과학기술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생산설비 보수 및 개건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러협력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에 보복 조치로 응수하고 있어 중국과 달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서방) 중심의 GVC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GVC로 이원화되는 경제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다. 향후 경제 블록화와 전쟁 특수에 편승한 북러 경협의 확대는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북한이 전쟁 특수에 따른 북러경협은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하게 될 것을 상정한다면,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보유에 치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UN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반대(2022.5.26.) 등 일련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 표명은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과거 스탈린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활용한 바 있다, 즉 미국이 유럽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한국전쟁에 미군을 불러들이고 중국을 끌어들이 싸움을 붙이려 기획한 바 있다.<sup>35)</sup> 북한은 이를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을 뿐 아니라 핵보유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35) “미국이 극동(極東)에 묶여 현재 유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리에게 득(得)이 되지 않는가? 의심할 바 없이 그렇다.” (체코 대통령에게 보낸 스탈린의 전문(1950.8.27.) 조갑제, “체코 대통령에게 보낸 스탈린의 놀라운 편지 발견!” 현대사발굴, 월간조선뉴스룸 (2012.8),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 참조

판단된다. 지난해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령을 개정(2022.9월)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 수를 급격히 늘리는(2022.10.6 기준 25회)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도 UN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를 반대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암묵적 지원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러협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와 동북아정세를 연동시키게 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소형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은 핵의 자위적 사용이 갖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한편 러시아의 지지로 생긴 핵실험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러경협은 대북제재로 위축된 중국과의 경협을 일부 대체함으로써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한은 장기간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 선택의 폭이 크게 제약되었다. 향후 북러협력이 증가하면 중국 의존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 3. 북러 경협 진전의 전망 및 사인포스트(signpost)

최근까지 전개된 북러 경제협력과 경협에 필요한 철도·도로, 교량, 항만 등 인프라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북러 경협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향후 북러 경협 진전의 규모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signpost는 경협에 필요한 철도·도로, 교량, 항만

등 인프라의 건설·개건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되는가 하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육상 화물열차 운행 재개, 나선 3부두에 코로나 방역장과 방역설비 확충, 나선향에 러시아 선박 및 화물하역 관찰, 장기적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 진척 등이 주된 signpost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프리모리에 변강과 북한의 국경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도로교 건설에 대한 논의가 2015년부터 이어졌으며, 2019년 봄에 마지막 논의가 이루어졌다.<sup>36)</sup> 그러나 2019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 수행되었으나,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더이상 추진되지 않았다.<sup>37)</sup> 2022년 6월 23일 양국의 장관들이 화상회의로 만나 철도운송재개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우정의 다리’ 도로교 건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북한의 윤종초 대외경제상은 무역재개를 위해 소독단지구축을 완료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ㄱ</sup>

36) 2차선 도로교의 계획 너비는 10m로 길이는 러시아 부분 300m, 북한 부분 530m이다. 연간 약 6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총 비용은 약 10억 루블 예상되었다. 당시 극동·북극개발부 차관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Александр Крутиков)는 북한이 노동자와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Зачем России новый мост в КНДР?” (2020.8.30.) East Russia.

37) 한 전문가는 한동안 이 사업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잦아든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 첫째,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도로교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 현재 존재하는 “우정의 다리” 철교의 용량은 연간 500만 톤이지만 실제 교통량은 훨씬 적다. 2017년에는 250만 톤, 2018년에는 110만 톤에 불과하다. 사업의 목표가 러시아와 북한 간 화물운송확대라고 하면,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진 항구간 페리 서비스 개발이 더 경제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셋째, 이 사업은 프리모리에 변강 주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2019년 초 이 지역에서 717개의 다리가 파손되었고 당국은 2024년까지 연방 예산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128개만 수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국내 문헌〉

- 김규철. 『북한의 석유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세종: KDI, 2018.
-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성진근.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전략』, 서울, 2014.
- 전현준. 허문영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 이영훈.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의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 분석: M. Porter의 value chain 모형 적용.”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 2022.
- 이영훈. 최장호.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제18권 제2호, pp.5~52, 2023.
- 이유진. “최근 북한의 국산화 현황과 전망,” 『KDB 북한개발』. 겨울호 2017.
- 임강택.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뉴욕주립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5.
- 최장호·이정균.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최장호·최유정.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기타〉

- 『동아일보』 2019년 1월 2일
- 『서울평양뉴스』 2022년 2월 3일
- 『연합뉴스』 2022년 6월 18일, 2022년 9월 11일, 2022년 12월 13일
- 『한겨레』 2022년 5월 3일
- 『CNBC』 2022년 3월 3일, 2022년 9월 6일, 2022년 9월 28일
- 『The DefensePost』 2022년 9월 22일

『ТАСС』 2022년 8월 19일

『VOA』 2021년 4월 9일, 2022년 9월 9일

『Ведомости』 2022년 8월 19일

『Известия』 2022년 7월 18일

『East Russia』 2020년 8월 30일

『1prime.ru』 2022년 8월 18일

『News.ru』 2022년 8월 4일

조갑제, “체코 대통령에게 보낸 스탈린의 놀라운 편지 발견!” 현대사발굴, 월간조선뉴스룸 (2012.8),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 (검색일: 2022.9.24.)

장수웅 미국연구소 연구사,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

러시아 중앙은행(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 <https://www.cbr.ru/>)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en/>)

한국통계청 북한통계포털(<https://hairo.unikorea.go.kr/info/ExpIndex0206.do>)

Mark F. Cancian, (2022.9.16.) “Is the United States Running out of Weapons to Send to Ukraine?”. CSIS, (<https://www.csis.org/analysis/united-states-running-out-weapons-send-ukraine>)